

사상 최고 주택대출금리 서민가계 '직격탄'

고물가와 자산가격 급락으로 가계의 살림살이가 한층 팍팍해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마저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많은 가정이 이자부담을 한 톨이라도 줄이기 위해 예·적금을 깨 빚부터 갚는 등 '자산 구조조정'에 들어갔으며, 법원을 찾아가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사상 최고=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번 주 3년 고정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를 지난 주보다 0.23%포인트 높은 연 7.68~9.18%로 고시했다. 이는 역대 국민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가운데 최고치다.

국민은행에서 이번 주 고정금리로 1억원을 대출받는다면 이자만 연간 918만원으로 두달 전 대출받을 때보다 145만원 늘어날 수 있다. 기업은행도 지난 주보다 0.20%포인트 높은 연 7.41~8.87%로 고시해 최고 금리가 역대 가장 높았다.

은행권 주택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최근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22일 변동금리형 주택대출금리를 지난 주보다 연 0.20%

빛 줄이려 예·적금 깨고 개인 파산신청도 잇따라

포인트 높은 연 7.34~8.29%로 인상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주에 연 6.25~7.75%로 고시해 전주보다 0.15%포인트 올랐다. 국민은행도 지난 주보다 0.11%포인트 높은 6.31~7.81%로 고시했다.

◇빚부터 갚자 ... 예·적금·보험 중도 해지=주택담보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보험이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박모(39)씨는 최근 보험 2개를 해약했다. 주택담보대출 1억5천만원을 연 6.7%의 금리로 받았으나 최근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이자부담이 커져서 일부 상환하기 위한 것이다.

20년 만기 교통상해보험에 월 4만7천300원의 보험료를 12년째 내고 있는 박

씨는 만기 환급금보다 앞으로 발생할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자 눈물을 머금고 해지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예·적금 중도 해약 건수가 올해 상반기 54만9천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천건 가량 늘었다.

◇급전미련 대출도 늘어=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은행에 넣은 예·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국민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 잔액은 6월말 현재 2조7천311억원으로 전달보다 460억원 늘었다. 5월 중개액 29억원에 비하면 6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신한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 잔액도 지난 3월말 8천221억원에서 4월말 8천25억원으로 줄었으나 5월말 8천103억원, 6월말 8천293억원, 7월16일 현재 8천341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증거액은 4월 1조원에서 5월 1조2천억원, 6월 1조8천억원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한은은 유가를 비롯한 생활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카드 결제 금액이 늘어나자 이를 결제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개인 파산신청도 잇따라=개인의 최후의 선택인 개인파산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04년 1만2천317건에서 2005년 3만8천773건, 2006년 12만3천691건으로 급증했으며 2007년에는 15만4천399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공공요금 인상 폭탄 터지나

전기·가스 이더 택시·버스요금까지 '인상 도미노'

물가 자극 인플레이션 가속화뎀 한국경제 '먹구름'



전기·가스요금에 이어 택시·버스요금까지 인상대에 합류하면서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조들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공공요금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필수영역인데다 다른 공공요금이나 일반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므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요금 도미노 인상=20일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현재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버스 등 교통요금 인상이 조만간 전 지자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지자체가 택시요금 인상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외부에 알리지 않고 버스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는 유가급등이라는 피할 수 없는 변수가 있다. 지자체들은 최근 유가급등으로 택시·버스요금에 20~35%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요금을 가급적 동결하려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교통요금의 도미노 인상을 가까스로 틀어막고 있으나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다.

◇전기·가스요금 인상-물가 도화선=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다른 공공요금 인상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8월 1일부터 3개월에 걸쳐 총 30~50%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인상되면 지역 도시가스사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거쳐 소매가격을 올리게 된다.

정부는 전기요금도 8월 중에 약 5%에 이터 내년 하반기에 한차례 더 올리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다만 전기요금은 산업용 위주로 인상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지자체가 관할하는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지역

난방비와 국공립대학 등록금 인상 등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킨다. 통계청이 소비자물가를 산출할 때 생필품에 부여하는 가중치를 보면 전기료는 19.0%로 52개 생필품 중 5위다. 도시가스료는 16.1%로 6위, 시내버스 요금은 11.4%로 11위다.

◇벌써 벗어나는 물가 전망=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가 기준에 제시했던 물가전망도 엇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달 초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 내외로 내다봤다.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치 4.8%와 비교하면 물가가 좀 더 내려갔으면 하는 정부의 희망사항이 가미될 수 처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물가에 관한 한 가장 공심력을 갖고 있는 한은의 전망치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요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료와 가스요금인데 일단 동결을 전제로 해서 올해 하반기 물가전망을 봤다"며 "따라서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오르면 실제 물가가 전망치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택대출 부실 금융불안 가중" 금융연구 보고서

물가와 금리상승 등의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부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건설경기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규모가 커질 경우 금융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강종만 연구위원은 20일 '은행의 유동성 확보와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최근의 금리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향후 경기침체에 따라 가계소득이 감소하면 은행 대출연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가계대출의 61.1%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연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삼성 MP3 '엠피' 소비자 직접체험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MP3 '엠피'의 고유한 음질기술인 DnSE(Digital Natural Sound Engine)2.0을 소비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색 로드쇼를 펼쳤다. 서울 동대문에서 펼쳐진 이번 로드쇼에는 '엠피'를 상징하는 귀여운 강아지 캐릭터 '새미(Sammy)'가 스트리트, 클럽, R&B, 콘서트를 등 DnSE 2.0의 다양한 음악 감상 모드를 직접 시연했다. /연합뉴스

송아지 출생 한달이내 신고후 귀표 부착해야

올해 말부터 송아지가 태어나면 농가는 한달 안에 반드시 축협 등에 신고하고 귀표를 붙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축산농가와 도축업자, 식육포장 처리업자, 식육 판매업자 및 기관 등이 지켜야 할 세부사항을 담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소 소유자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소를 수입·수출·양도·양수한 경우 30일 안에 지역 축협 등 대행기관에 반드시 서면·전화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연합뉴스

"공공건설 공사비 산정방식 개선" 저가입찰 관행제도 업체 경영난 초래 ... 월별 물가변동분 반영 필요

건설경영협회, 국토부 등 관계 부처 건의서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지난 18일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 공공건설 공사비 산정방식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건협은 건의서에서 "공공공사의 입·낙찰제도가 가격경쟁으로 운영되면서 적자를 감수한 저가낙찰사세가 급증하고 있다"며 "건설사의 경영난을 고려해 정부의 저가입찰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건협은 또 "현재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실제 공사비에 기초해 획일적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따라 구조적으로 저가 낙찰을 강요하고 있다"며 "저가 낙찰공사의 계약단가는 실적단가를 초과해서 제외되고, 시설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실적단가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실적 공사비란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

사의 표준공종별 계약단가를 근거로 입찰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로, 이전 공사가 지나치게 저가로 낙찰된 경우 그 다음에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이 낮아져 건설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건협은 이와 함께 정부의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원자재 값 상승을 고려해 월별 물가변동분을 공사비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오펜리빙스피츠포츠센터	인내데스크/인선요원/기안근무/세탁실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1	062-956-9405
한국쓰리엠펙	[품질관리/인선관리] 엔지니어 채용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2	061-330-7020
GM대우자동차(남부영업소)	2008년 신입 및 경력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2	062-653-5828
㈜신원테크닉스	범용선반 및 밀링기공 경력직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7/22	062-953-6722
아리솔	홈페이지 관리/현장 행사 홍보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3	062-265-0122
한백정보통신	사무, 전산, 고객관리, 스케줄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4	010-2615-5883
㈜한양에스엔씨	영업직/경리 사무직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4	062-382-1311
㈜유경하이테크	자체구매관리, 재고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7/25	062-956-8453
ING생명(본사)	저축성상품(주거연금/연금)고객상담원-월평균350만이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5	02-3452-2612
태정산업(주)	시설관리(공무/전기) 경력 직원	초대졸/경력3년	2400~2600	07/25	062-953-2300
문화상회	엔젤리너스커피샵 점장 및 매니저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7/31	010-8620-0185
현대에프에스	식품제조개발팀 영양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1	062-959-5114
정원교육문화(주)	식물교육문화/친절한 정원선생님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7/31	051-465-6664

"여건 많이 개선 됐지만 실투자자는 안해"

상의, 기업들 지방투자 선호도 조사

새 정부의 규제완화와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기업들의 지방투자여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 투자자의 연결은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800개 제조·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선호도 및 개선과제' 조사결과 상당수의 응답기업 (62.8%)들이 최근 지방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계획은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향후 1년내 지방투자 실시계획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12.6%만이 '투자계획이 있다'고 답변 반면 '투자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87.4%에 달했다.

지방투자에 의욕적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투자여력이 없거나'(55.8%)나 '경제여건이 나쁘기 때문'(35.2%)이라는 기업들이 전체의 91%에 달했으며, '수도권이나 해외투자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기업은 3.2%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주)로베스테이트 전원주택 '죽림향' 분양



(주)로베스테이트는 담양군 수북면에 전원용 주택단지 '죽림향'을 분양한다. <조감도> '죽림향'은 광주-전남 최초의 전원주택 대단지 조성 사업단지로서, 25필지(1만6천600㎡)가 공급된다.

대지조성사업은 사업자가 토목공사와 토지형질변경 등을 마친 뒤 분양하는 것으로, 대부분 단지 규모가 크다.

상·하수도나 도로 등 후속공사는 물론, 인허가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으며, 건축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의 062-251-4000.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로도복권 (제294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6 10 17 30 37 38	40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2,406,504,975	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1,705,256	26
3	5개 숫자 일치 1,411,027	1,137
4	4개 숫자 일치 56,496	56,795
5	3개 숫자 일치 5,000	947,708

팝콘복권 (제117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4조 132708
2	1억	1조 791595
		2조 513100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각조 41296
4	1백만	각조 8657
		각조 81
5	50만	각조 37
		각조 82
6	2천	각조 8
		각조 4
7	1천	각조 2
		각조 2